## 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NGO와 무형유산 공동체 간 디지털 간극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 1. 개요

코로나 대유행 동안 국내외 무형유산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심 지어 지역 정부 준위에서는 공동체 연계의 기반으로 여겨지는 지역 무형유산이 무시되기도 한 다. 한국의 사례들은 우리 무형유산 공동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많은 문화 공연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 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계를 위한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대중들의 관 심이 멀어짐을 의미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와 관련된 방향들이 많은 행사의 취소와 함께 갈 길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내에 머물 며 대형 행사나 축제의 '멸종'이 일반화됐다. 한국의 NGO들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공통적인 방안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공동체가 온라인 활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 폼에 익숙하게 되는 것임을 제시해왔다. 한국문화재재단(CHF), 세계무술연맹(WoMAU), 세 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무형문화연구원(CICS)은 무형유산 보유자, 단체, 지역사회와 협 력해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돈이라는 요소를 두 고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다가왔다. UNAK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를 대표 하여 COVID-19 시대 NGO들의 전례 없는 경험과 무형유산 공동체와의 참여사례 및 현재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 2. UNAK :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

UNAK(UNESCO Accredited NGO Association in Korea)는 2016년 11월 4일에 설립된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로 국내에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무형문화연구원 (CICS), 세계무술연맹(WoMAU), 한국문화재재단(CHF)이 무형유산 분야 인가 NGO로 활동하고 있다. UNAK의 회원 기관들은 2003년 협약의 정신에 따라 국내외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활동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첫째, 각 회원 기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둘째,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발굴을 위한 협업, 셋째, 국내·국제무대에서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무형유산 공동체와의 상호 협력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UNAK은 2020년 7월과 11월 각각 제주도와 온라인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회원들은 코로나로 촉발된 어려움을 공유하였는데, 특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실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한 각 NGO의 사례들이 함께 언급되었다. 두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제주 해녀 문화'가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7월 23일 제주도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이 주최한 첫 워크숍이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규모 회의로 축소되었고, 평소의 참석자와 비교하여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해녀들과 함께 최근 커뮤니티에 합류한 해녀들의 참여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발표 대부분은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특히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놓여있었다. 이 주제는 워크숍의 주요 의제였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해녀 공동체의 문제점과 도전과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젊은 여성들 중에서 왜 해녀의 길을 선택하는가? 장비 하나 없이 다이빙해야 하는 고됨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녀 문화에 대한 그들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가? 가사와 물질이 상호 양립이 되는가? 그들은 해녀로서 자부심과/또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이 논의되었다.

해녀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것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해녀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해녀들과의 교류와 대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문화재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걱정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아 해산물의 소비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해녀의 수입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NGO들의 일상적인 모임 활동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세계무술연맹의 경우, 연례 무술 공연과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예정되어있던 국제 심포지엄이 취소되었다. 기존활동 중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전 세계 유네스코 인가 무술 NGO 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들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WoMAU는 각국 대사관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연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연맹은 근래 목록작업과 기록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1년에 예정된 교육프로젝트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고용률 증진을 위해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행정시스템(ERP)을 시행하는 등 향후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대외 활동을 위한 창구로써 연맹 홈페이지는 물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실내에서의 사업 수행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문서의 기록·보관을 위한 작업 시간이 증대되었다. 세계탈문화예술 연맹은 SNS, 이메일,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국내외 회원들과 소통하였고 연맹 활동의 온라인 아카이빙, 온라인 회원 가입 등에 사업을 집중하였다. IMACO는 2020년 3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3개의 온라인 포럼과 축제에 참여했다. 8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국제 가면 온라인 페스티벌, 9월 솔로 국제공연예술축제(Solo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of Indonesia, SIPA), 10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총회와 ICH NGO 포럼 온라인 행사에 참가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IMACO는 향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보존회 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탈춤 전문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네스코에 한국 탈춤 등재를 위한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분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무형유산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실로 우려 스럽다. 전 세계의 많은 무형유산 공동체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특히 2020년은 예술의 표현을 통해 대중과 함께 만나야 하는 무형유산 연행자, 보유자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었다. 관객과의 밀접한 소통이 없다면 무형유산 분야에 종사 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는데, 전승 과정의 지속적인 연행에, 우리의 것으로서 과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형문화연구원은 무형유 산 공동체에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1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JIAPICH)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JIAPICH의 목적은 국적, 민족, 종교, 인종, 나이, 성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성향과관계없이 범세계적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무형유산의 보호 활동에는 '보호'를 위한 모든 효과적인 방법이나 접근법을 포함한다.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주시 이름으로 상과 상패를 수여 하였다. 지역 정부로서 전주시는 무형유산 보호와 보유자·연행자들에 대한 존중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JIAPICH는 국제 무형유산 공동체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온라인 시상식은 전주시가 주관하고 CICS가 사무국 역할을 맡은 지역 시책이었다.

국외 무형유산 보유자, 연행자, 단체들로부터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본 행사가 본선 진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최 측과 전주시의 바람이었다. JIAPICH 온라인 시상식을 위해 제작된 상패는 세 명의 결승 진출자에게 돌아갔고, 모두의 축제로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물론, 이 같은 행사가 전 세계 모든 무형유산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온라인 행사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고 전주시가 추진한 하나의 긍정적인 지역 이니셔티브라고 본다.

## 3. 코로나19가 UNAK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상기 제시한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들의 사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을 보여준다. 코로나 사태는 현재의 추세를 보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진행형 팬데믹 앞에서 UNAK은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밀고 나아가야 하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목록화 작업,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공동체 연계사업 등 많은 대내적 프로젝트들이 모든 NGO에서 확대되었다. 또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불가피한 온라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향후 협의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고 모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온라인 활동과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면서 무형유산 보유자, 집단 및 공동체에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긴급한 당면과제이다. 대부분의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온라인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보존회, 집단 및 공동체들을 도와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우리 NGO들의 경험에 비추어 무형유산 보호조치의 대응책들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